

# 완도군, 기능성 색깔보리 5종 첫 출하

### 수분 보충·피로회복 돕는 단백질·미네랄 풍부 해양치유산업 먹거리 기반으로 본격 육성 추진

완도군은 청산도에서 생산한 흑색 보리, 자색보리, 청색보리 등 완도에서 생산한 색깔보리 24톤 중 11톤을 첫 출하했다.

완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산도의 겨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해양치유산업 먹거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11월 색깔보리를 도입하여 17ha에 파종하였다.

색깔보리는 여름철 수분 부족시 수분 보충에 좋을 뿐만 아니라 피로회복

을 돕는 단백질, 철분, 미네랄 등이 풍부하다.

동의보감에는 쌀, 보리, 조, 콩, 가장 중 보리가 으뜸이라는 의미에 오곡지장이라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이번에 출하된 색깔보리는 흑색, 자색, 청색, 흰색, 곱보리 5종으로 색깔보리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보리전문기업체를 방문하여 계약재배 추진 및 종자공급 등을 위해 작년부터 10회 이상 접촉, 조율 및 협의를 거쳐 완도에 중

자를 처음으로 공급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 색깔보리 종자확보를 위해 종자증식단지를 조성하여 약 20톤 이상을 확보했다.

군은 올해 가을 100ha 이상 확대 재배하여 본격적인 특화단지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리밥을 지었을 때 색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유망한 신종인 영백찰보리는 완도군에서 통상식사를 취하며 완도군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백찰보리 단지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쌀보리 시장에서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기능성 칼라보리 특화단지 육성사업은 예부터 청보리로 유명한 온 국민이 가장 가고 싶은 섬인 청산도를 중심으로 재배하게 되면, 한차원 높은 칼라관광 이미지를 갖게 되고,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치유기능성 색깔 농산물을 쌀, 잡곡 까지 확대하여 해양치유산업의 먹거리 기반을 만들어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목포시, 평화광장 앞바다 갈치낚시 허용

### 내달 20일~12월 10일

목포시 평화광장 앞바다 갈치낚시 영업이 오는 8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목포 갈치낚시는 짜릿한 손맛과 함께 낭만항구 목포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는 색다른 묘미가 있어 매년 많은 체험 관광객이 찾고 있다.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는 항만구역으로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조업이 금지된 구역이지만 목포시는 목포 지방해양수산청 및 목포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8월 20일부터 12월 10일 까지 113일간 한시적으로 낚시 영업을 가능토록 허가받았다.

시는 갈치낚시를 이용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

고 관광객에게 낚시라는 색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5일간) 갈치낚시 영업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총 70척이 영업업선으로 등록했다.

시는 26일까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서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영업업선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영업기간 동안에도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및 해양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구명조끼 및 소화기 등 안전장비 비치 ▲화장실 비치 ▲항해용 레이더 등 야간운항 장비 ▲신고확인증 및 승객 준수사항 게시, 승객명부 비치 여부 등이다.

## 무안군, '스마트 이장넷' 구축 소통행보

무안군은 행정의 최일선 이장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스마트 이장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소통행보에 나섰다.

'스마트 이장넷'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통한 문서수신과 회의알림, 재민·재해 현장 민원신고 등 실시간 소통체계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 무안군 이장들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각 마을에 보내는 공문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마을의 각종 현안사항도 원거리 보고를 통해 함께 공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은 긴급한 공문 수령, 재해 피해 보고 등을 위해 농번기에도 읍면사무소를 수시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시스템 보급을 위한 설명회에 참석 앞으로 무안군 이장들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각 마을에 보내는 공문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무안=이기성 기자

## 신안군 하의보건지소 영유아검진 시작

신안군은 다음달 1일부터 하의보건지소에서 영유아검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유아건강검진이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 영유아가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발달신발검사, 문진 및 상담, 건강교육을 포함한 일반검진 7회(구강검진 3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승인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는 것이다.

신안 하의·신의·장산면 검진 대상 200여명 영유아들은 그동안 배를

타고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원거리에 있는 군 보건소나 목포권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서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하의보건지소의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년 4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사를 채용,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하의보건지소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X-선 촬영장비, 임상병리검사장비 등을 갖추고 작년 4월부터 기능 확대형 보건지소로 운영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영암군 드림스타트 2차 부모 교육 실시



영암군은 지난 23일, 25일 드림스타트 아동의 부모 및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성격 유형별 자녀의 양육법에 대한 2차 부모교육 '자녀 맞춤형 대화법'을 운영하였다.

교육은 총 2차례에 걸쳐 청소년수련관과 삼호드림스타트에서 야간 교육으로 진행되었고, 자녀 안전의 격려를 돕고 부모교육 집중도를 높이고자 동반아동 돌봄교실을 병행·운영하였

다.

이번 부모교육에서는 생애주기별 발달과정에 따라 자녀의 성격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별 주양육자가 자녀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람직한 양육법을 교육하고, 현재 자신이 어떤 부모인지 양육태도 검사를 통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한 수강생 중 한 부모는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아이를 위한 한 가지 행동을 되돌아봤고 사춘기 자녀교육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무척 소중한 교육이었다"라고 말했다.

영암군 드림스타트는 9월 중에 자녀 인성교육과 정찬법 및 훈육법'을 주제로 3차 부모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 '신뢰·친절·청결' 관광도시 강진군, 관광객 맞이 총력

### 본격 휴가철 맞아 음식점 46개소 위생 점검 실시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강진군이 철저한 위생 점검으로 휴가철 손님맞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간을 '위생안전 중점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관광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집중 지도활동 및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마량항 등 주요 관광지 음식점과 터미널 인근 등 46개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9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 처분하였다.

아울러 음식점 지도점검과 불친절, 바가지요금 업소에 대해서도 강력 조치를 취하는 한편 조리장 위생관리 향

상을 위해 살균소독제 120개, 위생마스크 400개, 위생복 400개 등을 업소에 배부했다. 또 관내 498개소 음식점에 문자를 발송하여 친절서비스, 청결, 식중독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 하였다.

군은 철저한 위생 점검과 함께 체류형 관광콘텐츠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방문객 증대에 본격 박차를 가한다.

가우도와 다산초당, 고려청자박물관과 놀토수산물시장 등 기존의 문화·관광자원과 함께 '관광지 순환 셔틀버스 도입, '사외제 저택거리 조만간 공연 등 새롭게 확충된 관광콘텐츠로

방문객들에게 강진의 매력 알리기에 나선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강진의 3대 대표 물놀이장인 보은산V랜드, 석문공원, 초당림이 일제히 개장에 방문객의 발길을 이끌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동 관광과장은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의 여행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위생 점검과 친절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와 신선하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강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진도군, 상반기 신속 집행 평가 '우수상'

진도군이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재정인센티브 3,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신속집행 대상액 1,956억원 중 1,116억원을 집행해 목표율 55.5%를 초과하는 57.1%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특히 재정 집행실적, 일자리 및 국고보조 사회간접자본 사업 집행실적 등 총 4개 지표에서 고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일자리·경제 활성화 앞서 인센티브 3,800만원 확보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와 고용침체 등에 따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올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율을 55.5%로 설정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이번 수상은 장기간 체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한 결과였다"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집행을 통해 주민에게 파급효과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겠다"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연초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부서 집행실적 일일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진도=조상용 기자

#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